

## 서평『그리스도와 법』 인간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방학을 맞이하여 신앙서적을 하나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와중에 월드뷰 편집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로버트 코크란 외, 『그리스도와 법』에 대한 서평을 써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다. 이렇게나마 결심한 바를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흔쾌히 수락했다. 예상한 바와 같이 당해 책은 꽤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글이라 읽는 데에 적잖이 애를 먹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법학을 공부하며 가르치고 있는 필자가 그간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이어서 흥미진진하게 읽었다는 사실 역시 고백해야 할 것 같다. 이화여자대학교 김대인 교수님의 인도로 참석하게 된 기독교사상 모임에서 필자는 강의에 실제적으로 기독교적 혹은 성서적 가치관을 투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다. 사실 필자는 다니엘의 본을 생각하며 세상일에 빈틈없는 기민함을 보여야 하지만, 어느 정도 세상과는 절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터였다. 여전히 그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접한 당해 문헌은 성서적인 해답과 아울러 지속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고민거리를 던져 준 소중한 나침반과 같은 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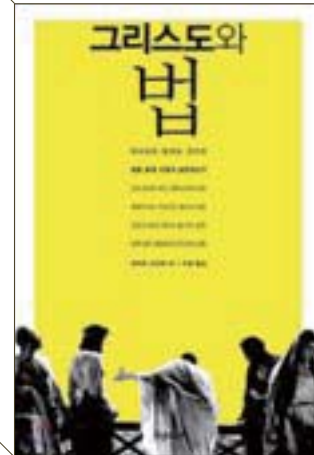
### 『그리스도와 법』에 대한 네 가지 입장

성서에서 ‘법’은 여러 가지 면모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선 일방적인 방향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즉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율법을 상징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해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 세상에 오셨음을 밝히신 바 있으며(마 5:17),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바울 선생은 사랑이



**김용훈**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을 거쳐 현재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유럽연합의 정체성 평가와 남북한 통합에의 함의-」, 경인문화사(2012)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조약-국제(통상·인권)법의 국내 실행과 관련한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7권 제4호(2011.12); “인권 보장 체제의 특징 -인권 보장 체제의 보충적 역할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2011.12); “평등권의 미국 헌법상 논의-미국 헌법상 성평등 논의와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예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2호(2013.8)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로버트 코크란, 앤절라 카멜라,  
제라드 브래들리 외 2명 저 | 이일 역 | IVP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하며(롬 13:10)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고 율법의 중요성을 바울 선생이 간과한 것은 아니다. 율법은 묵학 선생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지침적 역할을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 그리고 세상적인 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책자의 표지가 말해 주듯 오히려 세상은 ‘법’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단으로, 자기 행위의 정당화 수단으로 오용할 뿐이다. 하지만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듯 ‘법’이라고 다르지 않다. 인간의 ‘법’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김종철 변호사님이 한국어판 서문에서 인용하신 기독교법률가회의 비전 “법과 제도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개혁해 법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자”와 같이, 법률 영역 역시 예수님의 주권 아래 두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법과 기독교가 친하다는 주장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해롤드 버만 교수님 역시 당해 사항을 고백한 바 있다. 즉 그는 자신의 저서인 『법과 종교의 상호 작용』에 대한 동료 교수들의 흥미를 기대했지만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법학 교수가 법과 종교, 그것도 법과 기독교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이는 주목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책, 14쪽). 당해 문헌은 이와 같은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법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그 대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해 문헌에서는 이를 위한 네 가지 입장을 소개하며 당해 노력의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먼저 종합주의자(그리스도와 법 화해시키기)들은 가톨릭 영역에서의 신학적 기초, 인간상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자연법 논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룬다.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을 “인간의 죄성에서 정부의 필요성을 찾고, 강제력을 이용해 범죄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개신교와 달리, 가톨릭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 공동선의 적극적인 증진과 조정”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중국적으로 “국가의 개입은 시민 사회에 속한 집단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그 집단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도모되어야 한다고 상정한다(책, 72쪽). 나아가 “만약 세속법이 윤리적 질서를 거슬러,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입법된다면” 그 법은 “시민들의 양심을 구속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자연법을 “인간의 선택에 대해 규범적인 강제력을 갖는 원리와 규범, 그것의 존

재나 유효성이 인간의 선택이나 결정에 의존되지 않는 규범이나 원리”로 상정한 후, “자연적인 도덕법이 그 존재나 유효성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적인 도덕법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중국적으로 종합주의자들은 “교회와 도덕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책, 110쪽)... 하느님의 섭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신다(책, 111쪽)는 사실에 기반하여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의 책무를 강조한다.

그리고 변혁주의자(법을 변혁하는 그리스도)들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장 칼뱅의 믿음에 근거하여 인간의 동기와 신념, 나아가 행동 등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즉, 권력, 입법부, 인민 그리고 종교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오로지 “인간의 성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줄 도구로써 (성경적 의미와 세속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 법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책, 120쪽). 물론 여전히 “의사결정자가 성경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식이나 세속적 이성만이 지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책, 151쪽), 자신의 신념에 기초한 이론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학문이 신앙을 반영한다는 점 역시 그들은 지적하고 있다(책, 153~154쪽).

분리주의자(법에 대항하는 그리스도)는 침례교도 다수의 생각을 원용하여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과정 참여를 포함한 여타 정치적 참여에 거의 가치를 두지 않았”(199쪽)고, “외부의 세계를 신성한 혁신이 요청되는 영구적·반영구적 장소보다는 순례의 장소로 여겼다. 그들은 누구도 세속의 돌무더기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할 수 없다고 믿었다(200쪽)”고 소개하며 세상과 분리된 삶의 의미를 제시한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왕국의 법과 정치적 권력의 집

행 과정에 불러내는 것은 그분이 (최소한 현세에서는) 거절하신 왕국으로 그분을 옷 입히는 꼴”임을 지적하며 분리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비종교적 교육은 학생들에게 참된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미국의 ‘하나님 없는’ 공립학교들은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순례자들인 우리의 올바른 행동 개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책, 225~226쪽). 그리고 혼인 서약을 영원히 지속시킬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파탄주의’적 혼인 모델에서 ‘언약적’ 혼인 모델로 이행할 것과(책, 232쪽), 복지/규제 국가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고양되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 역할 축소를 주요하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책, 232~235쪽).

이원주의자(법과 긴장 관계의 그리스도)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법을 활용할 필요성을 믿었던 루터의 믿음에 기초하여, 법의 중심 초점으로 “언제나 사유의 중심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법의 목적으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자리가 반영된 특정한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제시한다(책, 270~271쪽). 따라서 법의 형성 및 개혁과 관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법을 집행하려는 자들을 지지하며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로 참여하고 동시에 법이 계획·해석·집행되는 모든 순간에 정의롭지 않을 경우 끊임없이 정직하게 비판적이어야 한다”며 그리스도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면서 특히 “...이웃의 복지를 위한 법률들에 대한 인간의 논쟁 속에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손길”의 존재를 믿는 루터파를 소개한다.

####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인의 책무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법』은 기독교와 법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자신만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조망하고 있다. 하지만 분리주의자의 경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분리되

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상정하고는 있지만 그와 같은 분리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나아가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등 당해 문헌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난해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문헌의 연구와 논의는 법 영역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이중 어느 하나의 입장이 옳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듯하다. 다만, 루터의 선언과 같이 ‘성경으로 돌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각각의 견해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볼 때, 모두 『그리스도와 법』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세상)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 10:16 하반절)”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지혜로워질 것을 당부하셨다. 나아가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세상으로부터의 고립과 분리 역시 명령하지 않으셨다(“...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내가 비유는 것을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요 17:14하반절~15”).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입장을 고려하되 성경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해야 한다.

세상에 속해 있는 신자들 역시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와 갖가지 제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 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법, 법 관련 제도와 기구는 우리 세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우리의 갈 바를 지시하고 있기도 하다. 리처드 던컨 교수 역시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당해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로 한 과부의 이야기이다. 남편의 유산인 네 채의 아파트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는 에블린 스미스 부인은 혼전 성

관계가 죄라는 확신 하에 동거를 원하는 미혼 연인들에게 임대료를 거부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 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주거에 관한 공정한 법률에 따라 동거 중인 미혼 연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에 따라 스미스 부인은 종교의 자유에 입각한 자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었다(책, 232쪽). 결국 법원은 ‘합법적이고 존엄한 법익(legal and dignity interests)’이 스미스 부인의 ‘사업 윤리에 대한 신의 요구’보다 훨씬 중요하며, 스미스 부인은 자신의 집을 팔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만을 향유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책, 234쪽). 이에 대하여 리처드 던컨 교수는 『분리주의자』의 입장에서 정부 역할의 획기적 축소를 주장하지만, 그 어려움을 인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함을 역설한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당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 역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책에 제시되어 있는 네 가지 입장은 각각 『그리스도와 법』 관계에 소중한 지침과 방향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지 입장 중 무엇이 보다 타당한지는 독자의 몫이지만, 『그리스도와 법』 관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독자라면 가까운 곳에 책을 두고 각 입장을 참고하여 보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와 법’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인데, 리처드 던컨 교수의 제안처럼 자신의 주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부터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기준과 원칙은 성경 말씀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는 예수님의 ‘사랑 명령’을 상기하면, 법 영역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사랑의 경기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